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82>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0장 證果 ⑧

중도의 정관은 불안이며 일체종지이다

深尋此偏意 非惟具足分別中觀之相亦是兼明 前二種方便觀門旨趣 當知中道正觀則是佛眼一切種智 若住此觀 則定慧力等了了見佛性 安住大乘行步平正 其疾如風 自然流入薩婆若海.

에 상측하여 시간적으로는 전후가 없고 공간적으로는 함께하기도, 차별이 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을 '중도'라고 한다.

일체종지(一切種智)라고 말한다. 수행인이 이 관법이 안주하면 선정과 지혜의 힘이 평등하여 명료하게 불성의 이치를 볼 수 있다. 진제 공은 바로 선정이며 속제 가는 바로 지혜이다. 공과 가는 둘이 아닌 것을 가리켜 선정과 지혜의 힘이 평등하다고 한다.

'흰 소에게 멩을 채웠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흰 소가 이끄는 큰 수레인 것이다. 대승에 안주한다 함은 안주한다는 집착이 없이 머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인위적인 조작이 끊어진 상태에서 임의로 운행하면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천태종 제2대조사인 혜문(慧文)대사가 중관론을 읽다가 사제품(四諦品)에 나오는 '인연소생법 아설즉시공 역명위가명 역명중도의(因緣所生法 我說即是空 亦名爲假名 亦名中道義)'라는 사구계에 이르러서 제법은 인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즉공 즉가 즉중 아님이 없음을 단박에 깨우치고 나서 일심삼관의 이치가 원만하게 되었다.

삼제실상은 시종이 없고 공간적으로 한계가 단절 삼관은 일심서 일어나고 오안차별은 하나의 지혜

수 있다. 그러므로 '불안'이라고 부른다. 계승에서는 "전안은 걸림 없이 소통하고 육안은 장애를 통과하지 못하며 법안은 속제만 관찰할 뿐이고 혜안은 공의 이치만을 알 뿐이다. 하지만 불안은 천개의 태양이 모든 사물의 차별을 관조하나 그 자체는 동일하다"라고 하였다.

큰 수레를 하사했다'는 비유를 인용하였는데, 이는 수행인이 원돈지관(圓頓止觀)을 닦는 것을 말한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그 수레는 높고 광대하여 못 보베로 아름답게 꾸며졌다"라고 하였다. 또 "흰 소에게 멩을 채워서 수레를 끌게 하였는데, 흰 소의 피부색은 깨끗했으며 형체는 특이했고 힘이 세었으며 걸음걸이는 울바르고 바람처럼 빨랐다. 그리고 많은 중들이 수레를 따르면서 호위하였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간략히 인용했을 뿐이다.

'흰 소에 멩을 채웠다'라는 것은 삼관이 원만하여 지에 상측한 관이고 관에 상측한 지여서 선정과 지혜가 두 모습이 아니고 칠각지(七覺支)가 고르고 평등한 것을 말한다. '바람처럼 빠르다'는 것은 원만한 관법이 본성에 걸맞게 일어나 임의로 운행하면서 인위적인 노력없이 수행하는 도로 깨달아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또 팔정도(八正道)를 중도로 실천하여 깨달음의 세계로 신속하게 도달함을 비유한 것이다.

그 뒤에 혜문대사는 일심삼관의 이치를 남악해사(南岳慧思)대사에게 전수하였고 남악해사대사는 천태지자(天台智者)대사에게 전수하여 지자대사가 이를 더욱 광대하게 펼쳤다. 지자대사는 마침내 삼대부소부(三大部五小部)를 설하여 천태종을 창립하고 부처님 일대설법시기를 다섯 시기로 교관하여 모든 종파를 겪고 못 확설을 뛰어넘었다. 따라서 이 사구계야말로 천태종이 건립한 삼관의 발원한 근원초소기이 때문에 그 의미가 심오하고 요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서 삼관(三觀)은 일심에서 일어난 관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관의 차별이 바로 일관(一觀)인 것을 요묘한 관법이라고 말하며, 오안의 차별이 하나의 안인 것을 불안이라고 하며, 삼지(三智)가 하나의 지혜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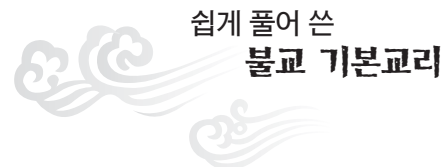
은 일체종지(一切種智)라고 말한다. 수행인이 이 관법이 안주하면 선정과 지혜의 힘이 평등하여 명료하게 불성의 이치를 볼 수 있다. 진제 공은 바로 선정이며 속제 가는 바로 지혜이다. 공과 가는 둘이 아닌 것을 가리켜 선정과 지혜의 힘이 평등하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수행으로 얻어진 경계만을 순수하게 밝혔으며 아울러 그 공력까지도 찬탄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다음문장에서 밝히는 의미와 중과장 이전의 아홉 장의 의미가 모두 밝게 드러나기 때문에 중복되는 번거로움을 없을 것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스튜디오 제작 보급

동행학원 지상강의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관)와 호법유사의 비관사(사) 새로운 유산학의 길잡이인 유산학의 신유스튜디오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s5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수행위차(修行位次)

- (4) 수습위(修習位) 견도회의 입심(入心) 다음인 주심(住心)으로부터 십지(十地)최후까지 차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① 극희지(極喜地) 보살이 처음 견도위로 진입하여 바른 수행을 함으로써 견혹을 타파하고 아·법 이공(仁空)의 이치, 즉 진여행등의 도를 증득하여 자타에게 이익을 주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법에 대한 극도의 희열이 최초로 일어납니다. 이를 극희지라고 합니다. ② 이구지(離垢地) 일체의 계행을 파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칠고 미세한 모든 번뇌를 끝까지 다 떠난 경지입니다. 이 경지는 심바라밀을 모두 닦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계력(戒力)이 수습하기 때문에 이구지라고 합니다. ③ 발광지(發光地) 선정에서 얻은 삼마지와 듣고 지니는 다라니는 능히 무량한 지혜의 빛을 의지하여 발현하기 때문에 발광지라고 합니다. 이 수행위에서는 선정력이 가장 수습한 승정(勝定)을 성취하여 가없는 오묘한 지혜가 일어납니다. ④焰慧지(燄慧地) 최승각(最勝覺)을 증득하면 지혜의 불꽃이 번뇌의 실을 모두 소멸하기 때문에焰慧지라고 합니다. 즉 번뇌의 실을 불사르는 불꽃과 같은 지혜를 증강하여 최고의 수습한 보리분법에 안주하는 수행위입니다. ⑤극난승지(極難勝地) 지금까지는 근본지와 후득지, 즉 진속양지(眞俗兩地)가 서로가 서로를 위반하면서 불안전하다가 지금에야 하나의 이치로 합하여 상응하기 때문에 극난승지라고 합니다. 세친(世親)보살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진제의 이치를 아는 지혜가 무분별지이며 세간의 모든 사물을 분석하는 지혜가 분별지(分別智)이다. 이 두 지혜는 출정(出定)과 입정(入定)에 따라 서로 위배한다. 즉 선정에 들면 현실 분별지를 잃고, 다시 선정에서 깨어나 분별지를 일으키면 선정 속에서 일어났던 근본무분별지를 잃는다. 때문에 이 둘의 지혜를 하나의 이치, 즉 무분별 속에서 분별이 분명하고 분별에서 다시 무분별로 합하여 서로가 하나의 이치로 호응해야만 한다. 수행이 이 경지에 도달하기란 극히 어려운데도 이를 이겨냈으므로 '극난승지'라고 한다." ⑥현전지(現前地) 이 수행지에서는 일체의 제법은 인연으로 생기는 이치를 관찰하는 특수한 지혜로 최승반야를 일으켜 그 지혜가 항상 목전에 나타나기 때문에 현전지라고 합니다. 또는 연기지(緣起智)라고도 합니다. ■정리=張如舟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음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DX-707 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 220,000원 ~ 68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소리공양 종목: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괄,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민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탕화 · 금고 · 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 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휴대 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98-15번지 주·야 상담 합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